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위르겐 칼허
Jürgen Kalcher

사회복지활동의 측정 오류에 관하여

도 입

어느 날 틸 오일렌슈피겔¹⁾이라는 사람이 작은 대학도시를 찾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위대한 학자이며 저 산 위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노라고 큰소리쳤다. 그러자 그 대학의 교수들은 그의 이러한 행동을 도전이라고 보고 이 귀찮은 허풍쟁이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 교수들은 그를 학술 세미나에 초청한 후에 준비된 질문으로 이 남자의 콧대를 꺾어놓으려 했다. 교수들은 그에게 정말 그렇게 유능한 학자라면 세계의 중심이 어디인지 대답해 보라고 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틸은 말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존경하는 교수님들께서 제 말을 못 믿으신다면 한번 재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

1) Till Eulenspiegel : 14세기 널리 알려졌던 장난꾼 이름. 익살꾼이란 뜻.

었다. 왜냐하면 세계의 구조와 관계된, 이 바보의 뻔뻔한 주장을 학문적으로 입증도 부정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틸 오일렌슈피겔은 토론에 열중해 있는 교수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길을 떠났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가 내준 과제를 풀기 위해 오늘날까지도 헛되이 애를 쓰고 있다.

위의 일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 이야기가 내포하는 자기주장의 관점(내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학문적 방법인 측정을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오일렌슈피겔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그 방법의 한계, 그리고 그들 지식의 한계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다. 설령 그 학자들이 우주에 관한 지식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세계를 측정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이 방법이 세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일까?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측정하려는 사람은 적어도 척도와 측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점이나 고정된 위치 또는 ‘영점’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바보인 요아힘 링겔나츠Joachim Ringelnatz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기준점’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축구광인 이 사람은 공 모양 비슷한 것만 보아도 발로 차곤 했다. 결국 그는 최고의 공격수가 되었으나, 나중엔 도가 지나쳐 지구를 발로 차고 싶어했다. 그러나 지구를 발로 차는 데 필요한 토대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발코니로 올라가서 기구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하늘로 영영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차 버린 것이다.’

링겔나츠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에 용감히 맞섰다. 첫번째 문제는 “어디서 시작할까”였다.’ 그러



나 우리의 이 영웅이 그 계획에 실패하여 미쳐버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측정의 매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측정은 원칙적으로 합목적적이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깊은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숫자로 파악된 것을 통해서 측정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지배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측정을 좋아하다 보면 생동감 넘치지만 예측 불가능한 타인이나 이 세계의 사물·사건들과 직접 만나는 대신에 측정값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 수가 있다. 즉, 측정 데이터를 연구함으로써 매혹적인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게다가 양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 ‘확실성’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위험부담이 적어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아무리 깊게 사고思考를 한다 해도 언제나 오류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숫자와 측정값만이 ‘발 밑의 땅’을 확실히 확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수많은 사건들과 끝없어 보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춘 호모 사피엔스는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신의 감각으로 인지한 사물과 현상들을 숫자로 세고, 이렇게 파악한 양량조차도 자를 갖다대고 비교를 해야만 만족한다. 물론 이 방법이 혼돈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현대인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냐하면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오류라고 밝혀지는 예 또한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은 ‘자동운동 현상’ 연구를 통해 재미있는 예를 하나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첫번째로 학생들을 나룻배로 데려가 광원光源이 하나밖에 없는 어두운 공간에 있게 했다. 이때 학생들은 한 명씩 따로따로 실험대상이 되었다. 실험자는 학생들에게 어두운 공간 안의 불빛이 움직였는지 물었다. 모든 학생들은 불빛이 움직이는 걸 보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광원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대상 학생들이 모두 모여 의논할 수 있게 했으며, 각자가 계산해 낸 이동거리 추정치를 심리학자에게 말하게 했다. 심리학자는 학생들이 말한 추정치를 받아적었는데, 기록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이 제시하는 추정치들이 점점 서로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처음의 추정치들이 서로 차이가 날수록 그런 경향은 더 심했다. 세 번째로 다시 학생들을 따로따로 실험했을 때에도 이러한 수렴의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결국 모든 추정치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이 작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결론(실제 있지도 않은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안구진탕²⁾이라는 현상 때문이었다)이라도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실들을 주관적으로 구성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대상자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관찰이 시각적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자 크게 허탈해했다.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심리학 전체를 비난하는 경우도 사실 드물지 않다. 그 심정

2) 眼球震盪 :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안구의 주기적 운동. 병적인 것도 있지만,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추정된 진리는 분명 죽은 진리다.

실험 대상자들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을 ‘실험 용 쥐’로 악용했다는 느낌 때문이다. 특히 자신들이 직접 지각한 것과 측정결과가 모순될 때 사람들은 테스트 결과를 더 불신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지각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고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위험까지도 감수한다. 이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데이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실험을 주관한 사람들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얻게 된 자신의 힘에 매료되어 실험 대상자들보다 테스트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리하여 숫자와 측정치로 표현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대화는 외면한 채,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속에서 이러한 측정방법을 더욱 세분화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

원칙적으로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학문적 테스트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객관성·신뢰성·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테스트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하여 추상적 목표가 구체적인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실험, 즉 위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실험을 구상해 낸다. ‘조작화Operationalization’(Opus=작업)라 불리는 자연과학의 인위적 개념을 이용하면 실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을 몇지게 재현해 낼 수 있다. 즉, 질적인 문제를 사물화하고 살아 있는 유기체와 관련된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인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하여 물리적인 측정이 가능한 단위로 계획적으로 축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지능을 인간이 소유한 정신적

이고 이성적인 재능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 사전적 의미에 금방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하고 측정하고 계산할 것인가? 이 과제를 실제로 풀어보려고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음을 당장 알아차리게 된다. 또 다른 추상개념들을 다루려고 해도, 이것이 처음 시작했던 개념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이에 반해 지능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간단명료하다. 즉, 지능은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 믿지 못하겠으면 재보시오!’ 라는 털 오일렌슈피겔의 말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측정작업을 통해 연구대상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숫자로 표현되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연구대상은 물리적 측정이 가능한 부분으로만 국한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오일렌슈피겔의 장난’ 정도로 냉소해서는 안 된다. 학문적 테스트 구성자들은 물론 이러한 한계를 잘 알고 있으며, 가능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들이 심리학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효율적이면서도 쓸모 있는 측정방법들은 예나 지금이나 잘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측정방법들을 정말 진지하게 재검토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테스트의 의미와 목적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테스트를 알아채서도 안 되며, 대개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의 이론적 전제조건을 잘 알지도 못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실험 대상자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가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심리적 특징들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로 비교이다. 상이한 측정치들을 숫자를 사용해서 서로 연관짓는 방식을 ‘상관관계’라고 하며, +1과 -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는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일치나 불일치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실제 작업에서 의미하는 바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테스트 결과가 분명할 때, 즉 결과가 평가자 개인과 무관하게 나오면 그 테스트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로 무관한 여러 평가자들이 동일한 실험 대상 집단을 테스트하여 나온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평균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테스트의 신뢰도는 유추적 방법으로 계산한다. 즉, 동일한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반복 실시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상관관계는 신뢰할 수 있다. 이때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확도는 반복해서 실시한 테스트들의 평균 상관계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측정기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법에 매료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독일로 수입된 심리학적 테스트 방법에 대한 매료 덕택에 테스트 구성과 테스트 분석은 독일에서도 자연과학적 심리학의 핵심분야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이루어진 비평가들에 의해 일반 사회 비평의 맥락에서 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고 하는 테스트에 의심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세 가지의 기준 중에서 실제로 작업하기 가장 어렵고 문제가 많은 ‘타당성’, 즉 테스트의 적합성에 대해 가장 먼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인성 자질을 조사하기 위한 테스트가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오직 인성 자질만을 고려해야 하며, 그 이외의 다른 것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아마도 지능을 측정하지 않고 학교의 학습조건에 대한 적응능력만을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타당성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학문의 뿌리와 그에 기초한 실제 연구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게 측정할 수 있단 말인가? 실험이 테스트 결과의 타당성, 신뢰성 및 객관성에 대한 많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가? 한 실험 대상자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된 미래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지식이—자족적인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그의 미래 행동에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테스트 심리학은—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지만—자신의 심리학적 장애물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 당시 교육학과 사회학에 종사하던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테스트에 대한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별 거뻐은 임금님에 대한 동화가 떠오른다.

사회적 성격의 관점에서 본 인간적 요소의 측정

셈하고, 측정하고, 범주화하고, 계량화하고, 셈하고 측정한 것으로부터 규칙과 규범을 도출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이성적 요구의 충족이나 지능적 유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좀더



효과적인 측정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가게 된다.

모든 시대의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열정적 성향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에리히 프롬은 사회적 성격학을 적합한 이론적 근거 모델로 제시했다. 셈하고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에 대한 열정적 흥미를 한번쯤 권위적 성향, 죽음애호적 성향, 마케팅적 성향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사회복지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량화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또 가능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위와 같은 시각에서 고찰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사회적 성격은 ‘일반적인 심리적 에너지가,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형태의 심리적 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³⁾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각 개인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 이러한 노력이 지닌 열정적 측면은 그와 같은 적응노력의 실존적 의미로부터 곧바로 이해될 수도 있다. 적응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정체성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겪게 되는데, 에릭슨⁴⁾은 이를 ‘역할혼미’라 불렀다.

측정이 권위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에 적용될 때는 개인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시스템 안에서 특정위치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때 측정과 계량화의 중요한 과제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관련된 차이점들을 수치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문제이다. 상체는 아래로 구부리고 하체로는 페달을 밟아대는 자전거 선수처럼, 이러한 데이터는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데

3) E. Fromm, M. Maccoby 공저, 1970b, GA III, p.255.

4) Erik Erikson : 1902~94 . 독일 출생의 미국 정신분석학자. 정체성 개념을 통해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더 나은 성공률을 갖고 있다는 것, 즉 의부에서 주어진 잣대로 재었을 때 우월하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보장해 주고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세일즈맨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좋은 동료일지라도 비웃음을 당하고 결국은 해고될 각오를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자아의식, 자기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아서 밀러⁵⁾는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이러한 상황을 탁월한 필치로 그려낸 바 있다. 사회적 병리학의 소외는 자신의 업무능력에 맞지 않는 외부적 잣대가 임의로 부과되는 데서 생겨나며, 이때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사이에는 어떤 정서적 관련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관련된 서적도 저술한 바 있는 한 성공한 경영자가 최근에 토크쇼에 출연하여 이렇게 권했다. “가끔은 누군가가 도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칼을 가진 자가 누군지 분명해지지요.” 그리고는, “이 말을 사사로운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고 덧붙이며 자신의 주장을 절대 감정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측정과 숫자 세기는 현대 스포츠에 있어서도 권위지향성의 표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올림픽의 ‘메달 순위’라든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순위표, 육상선수권대회나 자동차경주대회의 결과 등을 보면 언제나 측정된 시간과 너비와 높이, 즉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가 중요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게 되었는가는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 아주 가끔씩은 페어플레이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스포츠 선수 간의 기본적 동맹관계가

5) Arthur Miller : 1915~ . 미국의 극작가.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풀리처상 및 비평가단체상을 수상했다.



경기 결과로 인해 위협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상위의 메타원칙⁶⁾이 페어플레이이기 때문이다. 권위적인 조직구조 아래에서 스포츠는 수치상의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수치상의 결과가 힘의 우월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독일의 만화가 로리오트Loriot는 ‘수치상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은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자신의 만화를 통해 잘 보여주었다. 그의 만화에 클뢰브너 박사와 필러 뤼텐샤이트라는 두 남자가 목욕탕에 벌거벗고 마주서서 누가 더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는가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둘 중 누가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리고 승리감과 굴욕감이 엇갈리게 된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이 장면은 포르노와도 근접한 측면이 있다. 로리오트의 이 재미있는 만화는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야만적인 섹스 쇼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오르가즘의) 길이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섹스의) 빈도, 또는 시간으로 측정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날의 서양에서는 위아래 체위를 놓고 누가 권력을 가졌으며 누가 굴복하는가를 논하는 등의, 남녀 성 차이를 둘러싼 싸움에서 성과 관련된 수치와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중매체의 선정성도 한 몫 한다.

숫자로 파악된 수량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권위적 성향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생명이 없는 사물적인 것에 대한 매료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숫자는 죽은 것들과 관계할 때 특히 적합하며, 바꿔 말하면 살아 있는 것의 영혼을 없애

는 도구로서 적합하다. 특히 조작화라는 기법에는 전체적으로 파악되지도 않으며 지배할 수도 없는 것을 작은 부분들로 분해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산산조각난 지식은 그 대상을 규명하고 숫자로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조각난 부분들을 모자이크처럼 모아서 전체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고 믿으며, 실제로 이러한 것이 가능할 정도로 놀라운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의식 있는 학자들은 측정이 제대로 되었고 대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연구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 있는 것의 본질은 그 엄청난 복잡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연구가는, “우리의 측정은 전부 옳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틀리군요!” 라고 한탄했다. 이를 《파우스트》의 메피스토 입장에서 말해 보면 이렇다. “유감이다! 다만 정신의 끈이 부족하구나.” 어쩌면 특정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살아 가는 과정을 사물화시켜서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열정적 성향은 우리가 사는 산업세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우리의 지식과 인식이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것, 인간적인 것, 그리고 역동적인 것을 물질 대상으로서 관찰해야 한다. 즉, 죽은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힘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롬은 죽음애호증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프롬이 말하는 죽음애호증은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없는 것으로 바꾸려는 열정’⁷⁾이다. 죽음애호증적인 사회적 성격

6) Meta rule : ‘Meta’는 ‘초월’이란 뜻으로, 한층 더 높은 차원이 요구되는 윤리적 정당성이나 행동규범 등을 말한다.

7) E. Fromm, 1973a, GA VII, p.301.



의 표본은 순수하게 기계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나타난다. 즉, 죽음애호증은 ‘생명과 관계된 것들을 폭력을 사용하여 둘로 나누려는 열정이다.’⁸⁾

미다스 데커스⁹⁾는 죽음애호증적 색채가 농후한 저서 《시간은 모든 것을 씹는다—덧없는 것의 매력에 관하여》를 발간했다. 여기에서 그는 서양 사회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예정된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몰락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막아왔는가를 논하고 있다. 이 책은 몰락을 막아보려는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죽음과 몰락이 얼마나 고착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저자는 재치와 해박한 지식, 그리고 ‘쾌활한 분노’ 등을 동원하여 현대인의 다양성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상상력을 묘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에 대해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예측하여 맞선다. 죽음애호증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만약 몰락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나로 인한 것이지, 생명의 일부라는 속성 때문은 아니다!’ 데커스는 죽음애호증적인 사고방식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자연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연을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은 가만히 멈추어 있다 해도 항상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호가 그렇게 인기를 끄는 것이다. 자연보호는 자연을 멈추어 있는 그대로 유지시킨다.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을 자연이 원하는가? 바로 그 때문에 자연보호 운동가들은 풀을 뜯어먹을 가축을 풀어놓는다. 생명 대 생명,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항생제이다. 물론 사람이 생명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헬

스클럽의 자전거처럼 말이다.’¹⁰⁾

예측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에 가장 지속적으로 부합되는 것이 바로 기계이다. 기계는 이러한 열정의 생산품이자 주연배우이고, 하인이자 주인이다. 기계는 계산하고 측정하는 ‘생명을 항상 부정하는 정신’의 기술적인 육화 또는 사물화이다. 기계는 오늘날의 인간상을 반영하는데, 이는 학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생화학자 니덤¹¹⁾은 이미 1928년에 다음과 같은 인식을 했다. ‘학문에 대해서 인간은 기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¹²⁾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현대전의 폭력에 이용되는 끔찍한 첨단기술을 달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의 환경이기도 한 적의 생활공간을 ‘외과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파괴시킬 수 있는 이 기술 말이다. 이러한 기술은 죽음애호증적 성향이 다분한 이 사회의 계량화 및 측정기술의 궁극적 결과이다. 기계는 자연적 삶을 대체한다. 우리가 속도·길이·너비·높이의 차원에서 우열을 가린다면 기계의 ‘삶’이 자연적 삶보다 우월할 수 있다.

물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언급하건대, 학문과 기술을 싸잡아서 폄하하여 죽음애호증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낙인찍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궁무진하게 풍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용기가 기술에 대한 열광으로 인해 기술로 대체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술이 상당부분 이렇게 이용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미 그런 위험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은 질병이지 치료가 아니다. 데커스 또한 덧없는

8) 같은 곳.

9) Midas Dekkers : 1946~ . 네덜란드의 생물학자이자 저술가.

10) M. Dekkers, 1999, p.100.

11) Joseph. Needham : 1900~95. 영국의 생화학자, 과학사가科學史家.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 특히 발생생화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다.

12) J. Needham, 1928, p.86; 여기에서는 F. Capra, 1983, p.115 참조.



것에 대한 매력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죽음애호증적 성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데커스는 덧없음을 삶의 일부로서 수용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은 그의 생명 사랑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건물이 살도록 하라. 풍광, 조각 작품, 숲, 고래, 에스키모, 작은 소녀가 살도록 하라. 이들을 잘 돌보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시간이 지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다. 바람불어 떨어진 기와를 다시 얹고, 코흘리개 코를 닦아주며, 비바람으로부터 유적을 보호하라.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하라. 더러운 것은 깨끗이 닦으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¹³⁾ 이는 에리히 프롬이 말한 생명애호적 태도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비전이다.

이제 인간의 병리학적 소외의 정상성 문제를 계속 다루어 보자. 인간은 적응을 통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데, 스스로는 열정적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여 거기에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 우리 시대에서 이러한 적응노력의 가장 큰 특징은 마케팅 지향성이다. 자본주의 권력의 세계화가 주창되고 있는 이 역사적 시대에서 모든 행위와 체험은 스스로를 상품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품화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팔거나 살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선은 그다지 해가 없어 보인다. 프롬이 말한 마케팅 지향성 개념에서도 역시 상업활동을 하고 경제적 문제에 관여할 필요성과 효용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는다. 프롬의 마케팅 지향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업활동과 경제적 문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규정하는 삶의 원칙으로 변질되는 상황이다. 프롬은 이렇게 적고 있다. ‘마케팅 지향적 성격에서는 모든 것이 시장의 상품으로 변한다.

물건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 능력, 지식, 의견, 감정, 그리고 그 미소까지도 말이다.’¹⁴⁾ 프롬은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성격을 가장 최근의 변화, 즉 발전이 완결된 자본주의 최후의 산물로 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다른 성격지향성들과 마찬가지로 마케팅 지향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 역시 그것이 인간의 진짜 체험을 대체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을 스스로에게서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인간이 물건이 되고 물적 대상이 된다. 동시에 물적 대상이 인간이 되고 인간 존재와 비교되기도 한다. 이로써 이 두 가지 모두 시장에 적합해진다. 화폐경제와 자본의 필요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말이다. 아동을 거래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아이를 만든다’는 말과 함께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영자가 아이들에게는 각각의 값이 있다고 말해도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이때 숫자와 측정치는 상업적이고 경영학적인 범주 내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자질과 개인의 자질 대신에 돈과 돈의 가치를 갖 대로 삼아 이용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라이너 폰크는 소외의 무의식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아주 인상 깊게 지적했다. 소외를 의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마케팅 성향의 희생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부과된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프롬 스스로는 저서 《건전한 사회》에서 이러한 성격태도와 정신장애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사람들은 이제 도처에서 자신의 고유한 심리적 자원과의 접촉을 상실했다. 인간은 자신의 활동을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특정한 삶의 조건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반응으로 이해한다. 바겐세일이 끝난 다음날 판매사원이 고객들을 평가하

13) M. Dekkers, 1999, p.126.

14) E. Fromm, GA VII, p.317.



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물건을 사됐다!” 하고 말하는 데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마케팅 성격으로 묶이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성격특징들은 매우 많다. 라이너 폰크는 1998년 한 논문에서 이를 상세히 열거했고,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은 최근에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위험을 안고 사는, ‘표류’하는 현대적 유형으로서 인상 깊게 묘사한 바 있다.¹⁵⁾

우리는 아직 변혁의 세계를 살고 있다. 확연히 표출되는 마케팅 지향성과 더불어 권위적, 나르시스적, 그리고 죽음애호증적 성향이라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TV, 인터넷, PC, E-mail 등과 같은 현대 매체들은 이러한 기본태도가 폭넓게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매체들은 위에서 기술한 대다수 현대인들의 성향에 부합되며, 이들의 새로운 성격특징과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감각적 인식이나 모순된 느낌과 감정이 존재하며,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큰 진짜 인간 세계보다 자신의 구매력에 따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가상세계)를 누구나 선호한다는 것이다.

결과 지향성의 원칙 하에서의 사회복지활동

여기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이나 사회심리학을 어떻게 타당하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활동이란 언제나 그 중심에 인간이 있는

15) R. Sennett, 1998.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대인적 과제 또는 조직적 과제는 돌보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관리하고 살피는 등의 행위이다. (2) 사회복지활동은 언제나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활동의 중심인 인간은 결코 사회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씩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말이다. (3) 사회복지활동은 언제나 시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발전·프로세스·변화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 현실이 개별 인간과 그 사회적 성격에 포괄적으로 각인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프롬의 지적은 적절하며, 특히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그 방식은 다양할지언정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이들의 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때 ‘도와주는 직업’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도움이 아니라 금전적 대가를 받는 도움, 교육과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성찰되고 제어되는 도움이 문제가 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활동의 일관된 비용과 효용을 비교해 보고, 시장의 법칙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나 민영기관의 사회복지활동을 경제적 기준에서 바라보는 일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더구나 금고가 텅텅 비어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바로 이런 이유로 지난 몇 년 사이에 독일에서는 ‘새로운 제어 모델’이라는 경영학적 개념이 사회복지활동에까지 적용되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더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만들자는 목표 하에 독일 전역에 걸쳐 활동하는 ‘행정 간소화를 위한 지자체 공동본부KGSSt’에서는 1991년부터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기능적 결함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안했다. 그중 최대의 목표는 공공지출의 절감이었으나, 그밖에도 ‘국가의 긴축재정’이나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각 개인의



원칙적인 ‘자기책임’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 등을 제안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활동 대부분은 공공행정의 과제이며, 새로운 개념이 공공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사고방식은 많은 동시대인들이 진보사상으로 환영했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때 세계화의 물결은 자본주의적 경제 및 사회철학의 특별한 형태이며, 자본주의적 경제와 사회철학은 사실 프롬의 사회적 성격학의 배경이기도 하다. 항상 ‘새로운 것’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와 사회철학의 중심에는 경제체제의 조작 가능성과 자의적 제어가 있으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조건들, 즉 인간관계의 조건들이 소리 없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케팅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약자와 비특권층과의 연대, 또는—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마케팅 사회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개별적 삶에 대한 존중 등은 점점 더 경제적 강요에 굴복당하고 희생될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봉사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자신들을 점차 ‘고객 중심적 서비스업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회복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들의 사회심리학적 활동의 결과는 ‘상품’으로 이해되고, 사회복지활동은 ‘결과’나 ‘아웃풋’을 지향하지 더 이상 ‘프로세스’를 지향하진 않는다. 그러한 영향으로 ‘사회사업 관리’이나 ‘환자 관리’와 같은 개념이 호경기를 누리고 있다. ‘제품설명서’와 ‘보고서’는 의무적인 과제가 되었고, ‘관리’를 통해 목표와 현 상태 간의 편차, 즉 계획과 현실의 편차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함부르크에서 대규모 양로원을 운영하는 어떤 경영인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옛날의 좋은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는 예전에는 ‘양로원이 독지가에 의해 운영되며 각종 지원금을 통해 유지되어 나갔고, 경제적 이득은 부차적인 것이었다.’¹⁶⁾고 회고한다. 마케팅 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물론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 저서에 실린 다음과 같은 말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사람들은 양로원 경영진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경영을 잘 할 것과, 성과와 비용을 의식하여 시설을 잘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마치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이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기도 했다는 듯한 말투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활동의 경제적 토대를 합리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아니다. 한번 더 말하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며, 그 변화는 에리히 프롬이 말한 병리학적 의미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도 마케팅이 일차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사회복지라는 ‘상품’이 거래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의 ‘측정의 오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는 사회복지활동을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인간을 상품화한 데 있다. 측정의 오류는 사회복지활동을 상품으로서, 즉 상품화해야 하는 ‘사회복지기업’의 산물로서 이해한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경제적 합리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사회복지 서비스를 쇠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만 사회복지활동의 효과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오류가 지닌 위험성은 갖다맨 잣대 자체에 있으며,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케팅 대상으로 축소시킨 데 있다. 사회복지 ‘상품’이 이들 복지 대상

16) W. Muschter, 1998, p.17.



자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혹시 잠재 고객들이 이 상품에 대한 점차 큰 욕구를 갖게 되도록 이들의 이차적 욕구를 부추기지는 않는가? 사회복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나름대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기에, 고객은 이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단, 부르크하르트 뮐러(Burkhard Müller)가 말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공동생산’¹⁷⁾이 가능하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아무튼 고객을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측정의 오류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효용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에 맞추어진 인간을 만들어 내려는 일부 유전자 연구가들의 오만한 목표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법이야 어떻든 둘 다 ‘사용가치’가 더 높은 인간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활동에서는—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한—상호성, 참여자와의 만남, 그리고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활동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열려 있으며, 자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와 사회 교육가들은 자신의 활동·치료·교육·통제·제어 또는 강요 등을 통해서 복지 대상자들을 더 나은 가능성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싶어한다. 좋은 쪽으로의 조작은 대개 이런 동기를 조용히 덮어놓은 경우이다. 복지 대상자들을 감독하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자신의 일에 즐겨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또 그러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 또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과거의 조작적인 태도를 다시 취하

여 권력적인 수단을 투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소진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지극히 추상적인 ‘새로운 제어 모델’이 이러한 권력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거나, 또는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과 고객 간의 쌍방향 프로세스의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당연하다. 즉,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제시되어 있으니 나머지는 도움을 구하는 쪽에서 책임지라는 태도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복지 경영자가 잘못된 측정을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즉, 측정의 타당성이 결여된 탓에 올바르게 계산하지 못하거나 현실의 극히 작은 부분을 부당하게 일반화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심화되면 사회복지활동이 본연의 과제에서 이탈하여 사회 각 계급이 더욱 고착화되는 데 기여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제어 이데올로기의 추종자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이론에 어울리는 기본구상의 틀을 마련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들이 경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기업 경영자들과 같은 인식 하에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사회복지활동을 발전시키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오만과 자만으로 인하여 결국 측정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활동의 추이에 대한 생산적 비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과 긍정적 자극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17) B. K. Müller, 1998, p.43.



■ Jürgen Kalcher : 1935년 출생. 사회복지와 심리학을 공부한 후에 사회복지활동에서 그룹교육과 가정교육 분야 담당하였다. 1968년부터 강사로 활동했으며, 1980년부터 함부르크 대학 교수로서 사회교육학과에서 방법론과 심리학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과 관계되어 미국 및 프랑스 파리에서 상당기간 체류했다. 연구분야는 공공교육, 사회복지활동의 그룹지도, 이질적 문화 간의 교류, 시스템 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이며, 이 분야에 관한 수많은 저서가 있다.

[참고문헌]

- Capra, F., 1983: *Wendezeit*, Bern: Scherz Verlag.
- Dekkers, M., 1999: *An allem nagt die Zeit. Vom Reiz der Vergänglichkeit*, München: Karl Blessing Verlag.
- Fromm, E.: siehe die Nachweise am Ende des Bandes.
- Funk, R., 1998: *Wege aus der Entfremdung bei der Marketing-Orientierung*. Arbeitspapier beim 16. Treffen des AK 'Wege aus der Entfremdung' vom 14. bis 16 August 1998 in Tübingen.
- Müller, B. K., 1998: 'Psychosoziale Hilfen zwischen Markt und Humanität' in: Presseartikel zur Veranstaltungsreihe 'Der Mensch ist kein Ding' des 'Förderkreises der Psychologischen Beratungsstelle Tübingen', Januar/Februar 1998, S. 43.
- Muschter, W., 1998: 'Wirtschaftliche Steuerung in Sozialen Unternehmen' in: *standpunkt: sozial*, Hamburg Nr. 3, 1998, S. 17ff.
- Needham, J., 1928: *Man a Machine*, New York.
- Sennett, R., 1998: *Der flexible Mensch*, Berlin: Berlin Verlag.